



**‘금강삼매경론’ 출판법회**  
 법흥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은 14일 금수사에서 개금불사 회향 및 <금강삼매경론>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보살사 명부전 낙성식**  
 종산 청주 보살사 주지는 3일 보살사에서 명부전 낙성식 및 지장보살상 점안식과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초·중·고 합동수계법회**  
 복원 동국학원 이사장은 21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동국학원산하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신곡맞이 순회법회 봉행**  
 총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신곡맞이 전국순회법회를 24일까지 용승사, 흥법사, 만덕사 등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봉행한다.



**평화통일 기원 영산대법회**  
 세민 강남불교협회회장은 21일 오후 2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민족화합·평화통일 기원 영산대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진산식 열어**  
 자광 김천 직지사 주지는 26일 오전 10시 직지사 대웅전에서 지역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일주문



**청담대중사 기념행사 회향**  
 혜자 도선사 주지는 15일 호국 참회원에서 청담대중사 30주기 열반대제 및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회향식을 개최했다.



**49일 정진 기도입재식**  
 성월 강남포교원장은 11일 포교원 대웅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49일 정진 기도입재식을 봉행했다.



**세계평화 기원법회서 법문**  
 정각 부산 미공사 주지는 28일 부산 UN모지에서 봉행되는 국제영가전도 및 세계 평화 기원대법회에서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33회 보살계 수계법회**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16일 대법당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증빙법사로 제33회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약사여래종 총무원사 이전**  
 법흥 대한불교 약사여래종 총무원장은 20일 총무원사를 대전시 서구 신지동으로 이전한다. 011-9093-6686



**‘불교간병인회’ 창단식**  
 우학 영남불교대학장은 8일 관음사 4층 법당에서 제1기 불교간병인교육 수료식과 불교간병인회 창단식을 가졌다.



**‘우리절’ 관음전 낙성식**  
 동봉 곤지암 우리절 주지는 24일 오전 10시 관음전에서 ‘관음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31-763-4674



**‘전통해우소...’ 주제 특강**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전통해우소의 생명성과 친환경성’ 주제로 특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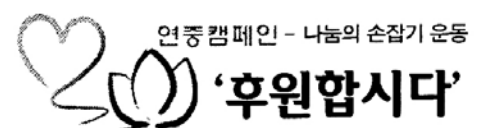
**국제포교사회장에 취임**  
 조우영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23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강당에서 제3회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천년 궁궐...’ 출판기념회**  
 신홍수 한국문화기능협회장은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천년 궁궐을 짓는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이재우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은 12월 2일 오후 7시 한국일보 송현클럽 13층에서 제6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일주일 네차례 신장투석 도전스님

고통속에서도 신장병 아동 돕기 계속



◇도전스님이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을 배웠던 스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하는 원망심을 버리고부터 부산의료원 행려 병자 간호,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후원 등 힘 닿는 대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회향해왔다. '물 한번 마음 놓고 마셔보는 것'이 소원인 신장병 환자

의 고통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스님의 대중 생활은 더욱 힘들다. 한때는 사찰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봐주며 지냈지만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생활. 잦은 병원 출입 등으로 스님은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을 개조해 병당을 마련하고 지내왔다. 어느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 퇴원해 오니 그마저 내달이면 비워주어야 한다.

스님은 주위 인연들에게 폐를 끼침까 마음이 편치 않다. 병원에서 한달 정도 더 있어야 한다는 것도 뿌리치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퇴원해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

사이를 순계가 힘들지 않겠느냐 물음에 "중간 중간 내리막길이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했던 스님. 스님은 지금 힘든 고개를 오르고 있지만 가쁜 숨 고를 수 있는 내리막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학교에서 일상으로 돌아온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115-21-0476-604(박동범), 전화: 011-571-4079  
 천미희 기자 mincheon@buddhania.com

“조직정비후 전방부대 지원 주력”

8일 창립 군예비역 불자회 이석복 초대회장



"이전까지는 군 예비역들이 개인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섰지만 창군 이래 처음으로 사무실 마련은 물론 조직적인 포교활동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쁩니다."

8일 창립한 군 예비역 불자회 이석복 초대회장(법명 환희, 사미는 '불자회 창립을 신호탄으로 불교계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전 연합사 부장모장인 이 회장은 태어나기 전부터 불자로 군 생활 중에도 수많은 개인교인들이 개종을 권유하였으나 끝내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단장 시

절에는 뜻을 같이하는 간부 및 사병들과 2년 동안 새벽 108배를 하기도 했다.

경전 중 '三日修心千載實(삼일수심천재보) 百年食物一朝塵(백년음물일조진) 사흘 동안 닦는 마음 천년의 보배요, 백년 동안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일세'라는 구절을 좋아한다는 이 회장의 불심은 현역 포교 지원으로 이어진다.

"현재 군 법당은 다수 있으나 군 법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직 정비만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인연을 맺어 줄 생각입니다. 오랜 군대생활에서 나온 경험들이 현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큰 신행단체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회장은 "불교계 잘못된 관행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제8회 불교 인권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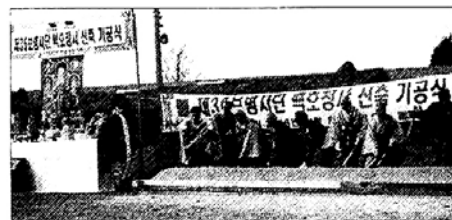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사미)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가 수여하는 제8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권위는 '87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신발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첫 조합원 직선에 의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은 민주노총 내 유일한 여성 산별 연맹 위원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식은 인권위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20일 오후 5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개최된다. 02-734-6401



진각종, 보살심선계 수계불사

진각종은 11일 서울 탑주심인당, 12일 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야계단에서 진기 56년도 보살심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해일 통인이 증빙아사리, 도흔 종사가 전계 아사리, 일정 종사가 길마아사리, 지광 종사가 교수아사리로 열린 이번 관정불사에서는 서울지역 142명, 대구지역에서 292명 등 총 434명이 보살심선계를 받았다.



백호부대 법당 기공법회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8일 원주시 제36사단 백호부대에서 법당신축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원주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양원도 사단장, 군불자 등 300여명이 모인 법회는 법당 신축 기부금 증정식, 시삽 등으로 이뤄졌다. 법회에서 원형 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은 "법당이 완공되면 장병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명불교양로원 증축 기공

사회복지법인 혜명불교양로원(원장 현성)이 13일 증축 기공식을 갖고 연건평 477평의 새 건물 불사를 시작했다. 기공식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주지 혜자 스님, 정무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보다 좋은 시설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팔관회(八關會)

팔관회는 팔재계의 실천을 통하여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팔재계는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릇됨을 방지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막아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재불보살님과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국민인간과 우리고장 부산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전통불교의식인 "팔관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팔재계(八齋戒)

1. 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 망 어(거짓말, 두 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아닌 때 먹지 말라

제3회 국민인간과 부산발전 기원  
 고승대덕 증명  
**팔관회**

※ 법회후 동참한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주접을하여 TV,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주 회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867-0501

**11월 22일 금 오후 1시**  
**사직실내체육관**

동참안내

1. 팔관회 연등 접수(1인 1등 10,000원)  
 저마다의 소구소망 담은 연등으로 행사장을 장식
2. 호법광명등 접수(1인 1등 100,000원)  
 각 사찰(단체)의 신도대표들과 희망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접수
3. 부산발전기원등(1인 1등 500,000원)  
 각계 지도자 및 희망불자님들을 대상으로 접수
4. 수록고흔 수계 및 천도제 접수(영가 1위 10,000원)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으기  
 일일 한 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자비의 쌀은 11월 22일(금) 오후1시  
 "팔관회"가 열리는 "사직실내체육관"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식전행사 안내

전통국악한마당 : 박경량(제5회 서울전통국악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외 국악인 다수  
 불자연예인공연 : 현철, 김병조, 이은하, 김혜연 등

시민·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